



“투·타 모두 초구부터 승부하라”

KIA 선동열 감독, 공격야구·집중력 주문

LG와 연습경기 9회말 끝내기 안타 3-2 승리

日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노히트노런의 수모를 겪은 KIA가 짜릿한 끝내기 안타로 오키나와리그 3연패를 면했다.

KIA 타이거즈가 4일 오키나와 오나손 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송산의 끝내기 안타로 3-2 역전승을 거뒀다. 2일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에서 단 하나의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며 노히트노런 패를 기록했던 KIA는 LG를 상대로 끝내기 승을 장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선발투수 박경태가 1회초 1사에서 양영동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이병규와 정성훈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며 1점을 먼저 내줬다. 4회에는 LG윤정우와 심광호에게 2루타 2개를 허용하면서 0-2가 됐다.

반면 한화와의 경기에서부터 이어진 KIA 타선의 0의 행진은 6회까지 계속됐다. 1회말 2사에서 안치홍이 선발 김광삼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기록했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다. 2회에는 선두타자 신종길이 우전안타로 출루한 뒤 견제사를 당하면서 공격의 흐름이 끊기고 말았다.

7회 15이닝 무득점 행진을 깨는 3루타가 나왔다. 대타 황정립과 류재원이 2루타와 3루타로 1점을 합작했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1-2로 뒤진 상태에서 맞은 9회말.

선두타자 안치홍이 LG 마무리 한희를 상대로 좌측 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로 반격의 기회를 만들었다. 김삼훈의 중견수 플라이로 1사 3루, 신종길의 빠른 타구가 1루수 옆을 빠져나가면서 1타점 적시타가 됐다. 이현곤의 연속안타로 1·3루를 만든 KIA는 우중간을 가르는 송산의 끝내기 안타로 3-2로 역전극을 펼쳤다.

선동열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공격의 흐름이 끊기고 말았다. 선 감독은 “타석에서 공격적으로 스윙을 해라. 투수들도 오늘 초구 스트라이크가 거의 없었다. 맞아 타자가 가는 것은 관중지만 볼넷은 안 된다”고 공격성을 강조했다.

집중력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날 경기에서 신종길·윤원주가 견제사를 당했고, 1루수 김삼현이 투수 견제 사인을 보지 못하면서 수비 도중 공에 맞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선 감독은 “타석에서는 10번 나와서 3번만 치면 성공하는 거지만 수비는 9할을 해야 한다. 경기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기 승리를 거두어서 좋겠다”고 말했다. /wool@kwangju.co.kr

SUN의 마음을 흠친 라미레즈



KIA 좌완 라미레즈가 3일 오키나와 차탄구장에서 타자들을 상대로 라이브 피칭을 하고 있다.

피칭 70개 제구력 “OK”

신입 호랑이 호라스이오 라미레즈가 ‘특급 제구’로 ‘선’의 마음을 잡았다.

라미레즈가 3일 차탄구장에서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뒤늦게 팀에 합류한 만큼 라미레즈의 등장은 KIA의 큰 관심사가 됐다.

잠시 타격훈련을 중단한 채 코칭스태프와 타자들이 마운드를 응시하면서 차탄구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라미레즈는 30개의 볼펜 피칭에 이어 40개의 공을 던지면서 자신의 공을 선보였다.

선 감독은 라미레즈가 공을 던지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만족감을 보였다. 선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제구’.

선 감독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식적으로 낮게 던지려 하는 것이 참 좋았다. 공을 던질 때 다리가 크로스 되고 오버핸드로 공을 던져서 폼이 까다롭다. 스피드가 더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 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다”며 “9일 마지막 연습경기 때 실전에 투입해 피칭을 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직접 라미레즈의 공을 받은 불펜포수 조현은 “공이 숨겨져서 나와서 타자들이 고전을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컨트롤이 좋은 투수다. 볼펜피칭과 라이브 피칭을 하며 70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포수 마스크 위로 가는 공이 하나도 없었다”며 “메이저 생활도 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맞지 않는 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석에 들어선 차일목은 ‘최고’라는 말로 평가했다. 피칭이 끝난 후에는 배터리 사인을 협의 하는 등 호흡 맞추기에 들어갔다.

차일목은 “컨트롤이 갖춰져 있고 공의 움직임이 좋다. 싱크 움직임이 좋고, 컷패스트볼도 좋다. 써클 체인지업도 구사해서 타자들에게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wool@kwangju.co.kr

안치홍 부상 투혼 2루타 ... 역전승 이끌어

KIA 안치홍이 부상 투혼으로 팀의 역전극을 이끌었다.

9회말 송산의 끝내기 안타가 나온 4일 LG와의 연습경기. 역전극의 시작은 안치홍이었다.

선두타자로 나온 안치홍은 한희를 상대로 2루타를 뽑아내며 마지막 공격의 불씨를 살린 뒤, 신종길의 안타 때 홈을 밟아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역전승을 이끈 2루타 뒤에는 아픈 손바닥이 있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선 안치홍은 한희의 공을 커트해 낸 뒤 손바닥을 만지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커트를 하면서 굳은 살이 벗겨져 통증이 왔

던 것이다. 잠시 손바닥을 어루만지던 안치홍은 다시 타석에서 서서 2루타를 만들어냈다.

안치홍의 왼손바닥에는 500원 동전 크기의 굳은 살이 박혀있다. 고등학교때 왼손바닥 뺏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흔적이다. 당시 충분한 재활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손바닥 통증을 안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도 한 차례 굳은 살을 걷어냈지만 4일 경기를 하면서 다시 살이 통째로 벗겨졌다. 하지만 승부근성이 강한 안치홍은 손바닥 통증을 참고 2루타를 때려내면서 3번 타자의 역할을 완수했다.

/wool@kwangju.co.kr

한화에 노히트노런 수모 ... 속소까지 7km 구보

선수단이 속소로 달려간 이유는? KIA는 2일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안승민·유창식 등 상대 신에 투수에 막혀 0-5로 영봉패를 당했다. 사사 전 크기의 굳은 살이 박혀있다. 고등학교때 왼손바닥 뺏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흔적이다. 당시 충분한 재활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손바닥 통증을 안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도 한 차례 굳은 살을 걷어냈지만 4일 경기를 하면서 다시 살이 통째로 벗겨졌다. 하지만 승부근성이 강한 안치홍은 손바닥 통증을 참고 2루타를 때려내면서 3번 타자의 역할을 완수했다.

선 감독은 “타석에서는 10번 나와서 3번만 치면 성공하는 거지만 수비는 9할을 해야 한다. 경기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기 승리를 거두어서 좋겠다”고 말했다. /wool@kwangju.co.kr

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속소로 돌아가는 도중 “몸들이 무겁다”면서 시합조 선수들에게 구보를 명했다. 중도에 버스에서 하차한 선수들은 6~7km 거리를 뛰어서 속소로 이동했다.

투수 유동훈 등 시합에 뛰지 않았던 고참 선수들도 구보 대열에 합류했고, 선 감독도 선수단과 함께 3km 정도의 거리를 구보로 이동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걸음을 했다.

구보 이동 후 첫 연습경기가 열린 4일, KIA는 15이닝 무득점 행진을 펼치기도 했지만 9회말 집중력을 발휘하며 LG를 상대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wool@kwangju.co.kr



“반갑다 K리그” 4일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전남홈 개막전.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전남은 강원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주앙파울로 K리그 개막전 승리 축포

후반 40분 결승골 ... 1-0 상무 제압

전남, 광양 홈에서 강원과 0-0 비겨

광주 FC가 개막전 승리로 2012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광주 FC가 4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개막전에서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터진 주앙

파울로의 결승골로 극적인 1-0 승리를 거뒀다. 홈에서 개막전을 치른 전남 드래곤즈는 강원 FC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특급 공격수 주앙파울로와 K리그

최장신 북이 두 외국인 선수가 나란히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에 승점 3점을 안겨줬다.

201cm의 북이를 앞세워 제공권을 장악한 광주는 상주를 거세게 압박하

면서 개막전 승리를 신고했다. 안성남의 강한 슈팅으로 시작된 이날 경기에서 광주는 김동섭을 앞세워 상주의 골문을 겨냥했다.

광주는 후반들어 전지훈전 득점왕 주앙파울로를 투입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렸다. 상주도 유창현과 백지훈을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두 팀은 후반전 슈팅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경기 종료 5분여를 앞두고 마침내 주앙파

울로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주앙파울로가 북이가 떨어뜨린 공을 잡아 오른발로 슈팅을 날려 상주의 골문을 열었다. 이후 광주의 수비진이 상주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1-0 승리를 지켰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전반전 공격에 힘을 주고 경기를 풀어갔는데 역습이나 시간차 공격을 못한 것이 아쉽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포진한 경험 많은 상주를 상대로 실점하지 않

고 경기를 마친 것에 대해 선수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이성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웠는데 지난 주에 푹을 다쳐 경기에 투입하면서 격정했는데 끝까지 잘해줘서 고맙다”며 “다음 상대는 포항이다. 무서운 팀이고 우승후보지만 상주 경기처럼 잘 준비해서 팬들이 즐겨워할 수 있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강

원과의 개막전에서 전·후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0-0으로 첫 경기를 마감했다.

비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양팀은 뜨거운 공방전을 전개했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데 실패하면서 승점 1점씩을 챙기는데 만족했다.

한편 최강희호의 활태자로 떠오른 전북 현대의 이동국은 개막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으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동국은 지난 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화성의 경기에서 전반 13분과 18분 연속해서 골을 넣으며 통산 117골을 기록, 우승을 (현 인천코치)이 가지고 있던 최다득점(116골) 타이틀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